



신앙 고백

I. 서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동의 믿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드러내겠다는 헌신으로 하나된 선교적이며 상호문화적인 공동체입니다. 빌리지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즐거워합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 경험을 가진 회중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이 모든 구분을 초월하여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I. Introduction:

We are a miss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ty united by our shared faith in Jesus Christ and a commitment to embody His teachings in our daily lives. At Village Church, we celebrate the variety and breadth of God's creation. As a congregation of diverse cultures, backgrounds, and experiences, we believe that our unity in Christ transcends all distinctions, uniting us as one family in Him.

II.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 아들, 성령을 믿습니다. 이 신성한 삼위일체는 완전한 연합과 사랑과 관계 안에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의도와 목적과 돌보심으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보존자로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붙들어 주시며,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존재를 조율하십니다. 구속자로서 그분은 깨어진 것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변화시키는 임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II. God:

We believe in one God, eternally existing in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a divine Trinity who exists in perfect unity, love, and relationship. God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having formed the universe with intention, purpose, and care. As the Sustainer, He upholds all creation, providing for its needs and orchestrating its existence with wisdom and power. As the Redeemer, He lovingly works to restore what is broken, offering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nd the transforming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이 모든 민족, 종족, 문화, 나라에 미친다고 확언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성의 풍성함과 그분의 영광의 광대함을 반영합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분의 구속 계획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며, 모든 배경의 개인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We affirm that God is love, and His covenantal love extends to every ethnicity, tribe, culture, and nation. Humanity reflects the richness of God's creativity and the breadth of His glory. His redemptive plan, revealed through Scripture and fulfilled in Jesus Christ, is for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drawing individuals from every background into His family.

이 믿음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반영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각 문화의 고유한 공헌을 존중하고 기념하며,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더 충만히 반영함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민족과 언어가 조화로운 찬양으로 하나 되어 창조주, 보존자, 구속자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예배합니다.

This belief compels us as a church to mirror God's inclusive love in our community. We strive to honor and celebrate the unique contributions of each culture, recognizing that together, we more fully reflect the beauty and majesty of God. As we worship the Triune God, we do so with the hope and vision of His eternal kingdom, where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unite in harmonious praise, proclaiming the greatness of our Creator, Sustainer, and Redeemer.

III.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인간이시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충만함을 구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가르침과 기적,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믿는 모든 이에게 구속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그분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 승리로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하셨습니다. 이제 높임 받으신 그분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우리의 중보자와 왕, 구세주로 다스리십니다.

III. Jesus Christ: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both fully God and fully man, Son of God, born of a virgin, embodying the fullness of divinity and humanity in one person. He lived a perfect, sinless life, revealing God's character through His teachings, miracles, and compassionate love. In His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He bore the weight of humanity's sin, offering redemption and

forgiveness to all who believe.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is the ultimate victory over Sin and Death, securing eternal life for His followers. Now exalted, He reigns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s our Advocate, King, and Savior.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 한분의 화해자이시며, 모든 분열의 장벽을 허무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과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 화해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몸이 됩니다. 그분의 은혜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적 구분을 초월하여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소망과 구원을 제공합니다.

We affirm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Reconciler between God and humanity, breaking down all barriers of division. Through Him, people from every tribe, tongue, ethnicity, and culture are reconciled to God and one another, forming one body united in faith and love. His message of grace transcends all human distinctions, offering hope and salvation to everyone, regardless of background or circumstance.

우리는 선교적이며 상호문화적 공동체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며 우리의 차이점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고, 편견과 불의와 죄로 인한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시킨다는 진리를 선포하며, 모든 민족이 그분의 보좌 앞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세상에서 화해의 사절이 될 힘을 얻습니다.

As a miss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ty, we are called to reflect the reconciling work of Christ by living in harmony, celebrating our differences as gifts from God, and working to heal divisions caused by prejudice, injustice, and sin. Together, we proclaim the truth that Christ's sacrifice and resurrection unite us as one family in God, anticipating the day when all nations will gather together before His throne in worship and adoration. Through Jesus, we are empowered to embody His love and to be ambassadors of reconciliation in the world.

IV. 성령:

우리는 성령이 활동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죄에 대한 확신, 진리 안에서의 인도, 고난의 때의 위로,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를 맺게 하십니다.

IV. The Holy Spirit:

We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is the active and present Spirit of God, who works in the hearts and lives of believers to bring conviction of sin, guidance in truth, comfort in times of struggle, and empowerment for holy living.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all who have faith in Jesus Christ, transforming them into the likeness of Christ and producing the fruit of the Spirit—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우리는 성령께서 차별 없이 일하셔서 모든 문화, 언어, 배경을 가진 믿는 자들을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키심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김을 위해 개인을 준비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자들에게 그들의 은사와 관점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활기차고 통일된 공동체가 되어, 문화적 차이를 하나님의 창조성과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We affirm that the Holy Spirit works without partiality, uniting believers from every culture, language, and background into one body. The Spirit distributes diverse spiritual gifts to equip individuals for service in God's Kingdom. The Spirit calls believers to use their gifts and perspectives to edify the church and reach the world with the Gospel.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 becomes a vibrant, unified community where cultural differences are celebrated as a reflection of God's creativity and glory.

다양한 믿는 자들의 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이해, 공감, 상호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언어, 편견, 오해의 장벽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일치와 사랑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함께 포용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살아내며, 모든 언어와 족속과 민족이 하나 되어 조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구현합니다.

As a diverse body of believers, we rely on the Holy Spirit to guide us in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the world, fostering understanding, empathy, and mutual respect. The Spirit enables us to overcome barriers of language,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empowering us to model the unity and love of Christ. Together, through the Spirit's work, we live out our calling as witnesses to the inclusive and transformative power of the Gospel, embodying God's vision of a Kingdom where every tongue, tribe, and nation worships Him in unity and harmony.

V. 성경: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 없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분의 성품과 뜻, 인류에 대한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어 방향과 가르침, 교정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뿌리내린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세대와 문화적 맥락에 적합하고 능력있게 말씀합니다.

V. The Scriptures:

We believe that the Bible, composed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inspired, infallible, and authoritative Word of God, given to reveal His character, will, and plan for humanity. It serves as the ultimate source of truth, providing direction, instruction, correction, and encouragement for all believers. Rooted in God's eternal wisdom, the Scriptures are living and active, speaking with relevance and power to every generation and cultural context.

우리는 성경이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인간 조건을 다루면서도,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관점, 전통, 경험을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배경을 고려하고, 그 신성한 목적에 비추어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겸손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함으로써 일치와 정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데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We recognize that the Bible transcends cultural boundaries, addressing the universal human condition while also honoring the perspectives, traditions, and experiences represented within the global Body of Christ. We are called to interpret Scripture faithfully, considering its historical and literary contexts and seeking to understand its message in light of its divine purpose. This requires humility, prayer,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s well as a commitment to reading and applying God's Word in ways that promote unity, justice, and love.

공동체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도 성경과 교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하는 통찰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행동, 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갈망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As a community, we affirm the importance of engaging with Scripture not only individually but also as a faith community, fostering an environment where believers from different cultures and backgrounds can study, discuss, and apply God's Word together. Our approach allows us to learn from one another, gaining insights that enrich our understanding of God and His redemptive work. Together, we seek to obey God's Word in reverent submission, allowing it to shape our beliefs, actions, and relationships as we reflect the heart of Christ in a world longing for His truth and love.

VI. 인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본질적인 가치, 존엄성, 그리고 존중받을 자격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존경,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성에 새겨진 이 신성한 흔적은 우리의 공동 정체성의 기초를 이루며, 각 개인을 하나님의 창조성과 목적을 독특하게 반영하는 존재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VI. Humanity:

We believe that every perso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bearing intrinsic value, dignity, and worth, and is therefore deserving of love, honor, and respect. This divine imprint on humanity forms the foundation of our shared identity, calling us to view each individual as a unique reflection of God's creativity and purpose.

죄는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영원한 죽음, 분열, 수치, 고독, 상처, 불의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과 화해가 가능함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은 인종,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서로와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길을 제공합니다.

While sin has fractured humanity's relationship with God and one another, leading to eternal death, division, shame, loneliness, brokenness, and injustice, we affirm that redemption and reconciliation are possible through Jesus Christ. His sacrificial death and resurrection provide a way for all people, irrespective of ethnicity, culture, socioeconomic status, or life experiences, to be restored 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nd one another.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충만함을 기뻐하며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고 모든 목소리가 들리는 공동체를 조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아 장벽을 허물고 의와 평화와 기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와 교제 속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공동 정체성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반영합니다.

We celebrate and embrace the fullness of God's creation, fostering a community where every person is valued and every voice is heard. We are called to model the love of Christ, breaking down barriers and actively working toward righteousness, peace, and joy. By doing so, we reflect the vision of God's kingdom, where people from every nation, tribe, and tongue are gathered together in worship and fellowship, united in their shared identity as God's beloved children.

VII. 구원:

우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의 자유롭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선물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삶의 기초와 영원한 소망으로 삼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시며,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VII. Salvation:

We believe that salvation is a free and unmerited gift of God's covenantal grace, offered to all humanity through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is gift is not earned by human effort or merit but is made possible by God's immense love and mercy. Salvation is available to everyone who repents from sin, places their faith in Jesus Christ, accepts Him as their Lord and Savior, and makes Him the foundation of their life and eternal hope. As children of God, the Holy Spirit is at work in our lives, teaching and equipping us to grow in Christlikeness and to live as witnesses of the Gospel's power to transform lives and reconcile communities.

우리는 구원이 모든 인간적인 경계를 초월함을 확언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포용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갈라놓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연합됩니다.

We affirm that salvation transcends every human boundary. It is an open invitation extended to all people, demonstrating the limitless and inclusive nature of God's love. Through Christ, the barriers that often divide humanity are broken down, uniting God's people as one family under God.

공동체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며 이 신성한 선물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독특한 관점과 경험을 가져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해를 풍요롭게 함을 인정합니다. 함께 우리는 복음의 화해하는 능력을 구현하고자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는 사랑의 연합과 조화를 본보기로 삼습니다.

As a community, we celebrate this divine gift by fostering unity in diversity through the Spirit. We acknowledge that everyone brings uniqu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that enrich our shared understanding of God and His Kingdom. Together, we seek to embody the reconciling power of the Gospel, modeling the loving unity and harmony that reflect the Triune God's vision for His Church.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상호문화적 신자들의 몸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편적인 초대로 선포하며, 우리의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임을 기뻐합니다.

By embracing this truth, we live as witnesses of the Gospel's power to transform lives and reconcile communities. As an intercultural Body of believers, we proclaim the message of salvation as a universal invitation, celebrating our diversity as a reflection of God's glory and the beauty of His eternal Kingdom.

VIII. 교회:

우리는 교회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민족과 문화, 나라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명을 구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표로 물 침례를 받아야 하며, 성찬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서로를 정기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침례와 성찬은 신성하게 정해진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는 공개적인 서약이며, 그분의 재림과 만물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합니다.

VIII. The Church:

We believe that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on earth, a spiritual family comprising Jesus-followers from every ethnicity, culture, and nation. It is a diverse yet unified community called to embody the love and mission of Christ. Following Christ's command, Jesus-followers are to be baptized in water as a profession of their faith, and are to regularly fellowship with Christ and one another in the ordinance of communion. Baptism and communion are divinely ordained means of grace, our public vows of submission to the once crucified and resurrected Christ, and anticipations of His return and of the consummation of all things. As His representatives, we are bound together by our shared faith in Jesus and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o reflect God's Kingdom on earth.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 세상에 대한 증거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는 각 문화의 독특한 기여를 기념하며 존중하고, 상호 존중과 소속감,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We affirm that our diversity is a gift from God, enriching our worship, service, and witness to the world. This variety reflects the heart of God, who desires that people from every background come together to worship Him in Spirit and truth. United in Christ, we celebrate and honor the unique contributions of each culture, fostering an environment of mutual respect, belonging, and understanding.

교회의 사명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기심 없이 타인을 섬기며, 담대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입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소명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 사명은 깨어진 세상에서 성경적 정의, 화해, 치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The Church's mission is to worship God wholeheartedly, serve others selflessly, and proclaim the Gospel with boldness and love. Compelled by the love of the Triune God, we are committed to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teaching and nurturing believers to grow in their faith and live out their calling as ambassadors of Christ. This mission includes actively seeking Biblical justice, reconciliation, and healing in a broken world, addressing underlying disparities, and building bridges of peace and understanding.

선교적이며 상호문화적 교회로서 우리는 복음의 화해하는 능력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함께 우리는 영원한 교회의 일치와 다양성을 모델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로 모일 날을 기대합니다.

As a missional and intercultural church, we strive to be a tangible expression of God's Kingdom, where the reconciling power of the Gospel overcomes barriers of culture and language. Together, we aim to model the unity and diversity of the eternal Church, anticipating the day when people from every tribe, tongue, and nation will gather as one to worship the Lamb of God in His glorious presence.

IX.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분의 생애와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나라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을 믿습니다. 이는 최종의 심판과 더불어 인류와 온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할 중대한 사건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창조를 새롭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완전한 일치와 평화, 정의로 특징지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영원히 경험할 것입니다.

IX. Christ's Return:

We believe that in Jesus Christ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broken into this world with His life, death, resurrection, an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Yet we also confess that the Kingdom is not yet fully realized. We believe in the personal and visible return of Jesus Christ, a momentous event that will fulfill God's redemptive plan for humanity and all creation, bringing the final judgment. When He returns, Christ will establish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renewing creation, ushering in His eternal Kingdom—a Kingdom characterized by perfect unity, peace, and justice. In this Kingdom, all divisions will be erased, and people from every tribe, tongue, and nation will dwell together in harmony, worshiping God and experiencing His presence forever.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쁘게 기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서로와 주변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다양한 문화와 광대함이 영원한 나라의 미리 맛보기임을 인식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배로 연합된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This belief inspires us to live with joyful anticipation of Christ's return, shaping how we engage with one another and the world around us. We recognize that the variety and breadth of cultures within the body of Christ is a foretaste of the eternal Kingdom, where God's glory will be revealed through the beauty of every nation and people united in worship.

이러한 소망에 비추어 우리는 화해의 사절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일치를 촉진하며,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이상들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성경적 정의,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In light of this hope, we are called to live as ambassadors of reconciliation, reflecting the heart of Christ by breaking down barriers, promoting unity, and fostering understanding across cultural divides. We are also called to be agents of positive change in the world, working toward Biblical justice, peace, and restoration in anticipation of the perfect fulfillment of these ideals in Christ's Kingdom.

선교적이며 상호문화적 교회로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넓은 세계 사회에서 화해와 치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이 부르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의, 환경 파괴, 억압 체제에 맞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임할 소망과 갱신의 한 모습을 세상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As a missional and intercultural church, we strive to embody this calling by actively pursuing reconciliation and healing in our relationships, within our communities, and in the broader global society.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we strive to address injustice, environmental abuse, systems of oppression, and demonstrate Christ's love in tangible ways, offering the world a glimpse of the hope and renewal that will come in its fullness when Jesus returns.

X. 선교적이며 상호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약속:

선교적이며 상호문화적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여기서 모든 개인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표징이며, 동시에 그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자 도구로서 연령, 인종,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축하받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중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소명과 목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공간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X. Our Commitment as a Miss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ty:

As a miss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ty, we are committed to fostering an environment that reflects the love of God, where every individual, regardless of age, ethnicity, culture, or socioeconomic background, is not only welcomed but also celebrated as an integral part of our family in Christ, being a foretaste and sign, as well as a vehicle and instrument of the Kingdom of God. We pledge to create a space where everyone feels valued, respected, and empowered to grow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live out their unique calling and purpose fully.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며, 겸손과 은혜로 우리의 차이점을 포용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감, 상호 존중,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간구하신 일치를 구현합니다.

We recognize that our differences are a gift from God, enriching our understanding of His character and His Kingdom. Therefore, we commit to listening deeply to one another's stories, learning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embracing our differences with humility and grace. By doing so, we grow together in empathy, mutual respect, and love, embodying the unity that Christ prayed for among His followers.

우리는 오해, 편견, 불평등의 장벽을 적극적으로 허물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성경적 정의, 공정성, 공정함, 그리고 소속감의 분위기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함께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자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We commit to actively dismantling barriers of misunderstanding, prejudice, and inequality, working toward a future where every member of our community can thrive in an atmosphere of Biblical justice, fairness and impartiality, and belonging. Together, we will serve as a living testament to God's love for all peoples and a powerful witness of the reconciling work of Christ.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분열된 세상 속에서 화합의 등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관계와 행동을 통해 복음이 모든 분열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양하면서도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하며, 영원 가운데 그 궁극적인 성취를 기대하는 가운데 지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반영할 것입니다.

With God's help, we will strive to be a beacon of unity in a divided world, demonstrating through our relationships and actions that the Gospel transcends all divisions. As a diverse yet unified community, we will proclaim the hope of Christ, reflecting His Kingdom on earth as we anticipate its ultimate fulfillment in eternity.